

# 곤충과 30년 동고동락... 곤충학자가 전하는 그들의 생존과 지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곤충은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

정부희 지음

이맘때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 보면 매미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로수 사이로 울려 퍼지는 매미 울음소리는 성하의 계절이 주는 낭만이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무성한 나무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새삼 곤충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몰염치한 이들을 가리켜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한다. 이 같은 표현에는 곤충은 하찮은 미물이라는 전제가 내재해 있다. 과연 그럴까?

곤충학자인 정부희의 우리곤충연구소 소장에게 따르면 곤충 개개의 능력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나은 경우도 많다. 생존하기 위해 먹고, 천적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하고, 짝짓기를 위해 선물을 주거나 노래를 하는 구애 행동을 한다.

곤충의 양태는 사람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곤충의 행동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짝짓기에 몰입한다는 점이다. 이 두 목표 외의



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희 곤충학자가 펴낸 '곤충은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는 흥미롭다. '손톱만 한 작은 짐승과 30년간 한술밥 먹은 곤충학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곤충과 동고동락했다. 그동안 저자는 환경 단계를 비롯해 방송에서 곤충 생태에 대해 알려주며 '곤충 사랑 풀뿌리 운동'에 진력해왔다.

이번 책에는 곤충의 다채로운 습성, 인간의 영원한 이웃 수박에 없는 곤충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지구 환경이 바뀌어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곤충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존재다.

식물의 85%를 동물이 중매를 서는데 이것의 대부분이 곤충에 의해서다. 동물의 사체 또는 폐기물을 분해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곤충의 역할이다.

곤충들 가운데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어떤 곤충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먼저 배주는 행위를 한다. 전갈과리인 '밀들이'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 먹잇감을 준비한다. '밀들이'는 수컷의 배를 매미가 위로 치켜들여 있는 모습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이와 달리 암컷 배공무늬는 송곳처럼 뾰족하다.

수컷 수명은 고작해야 열흘 남짓인데 이 기간 단

하나의 임무는 짝짓기이다. 수컷이 곤충을 사냥하면 암컷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한다. 물론 짝짓기를 무기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수컷은 구애를 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일단 크기가 커야 한다. 수컷이 페로몬을 내뿜으면 암컷은 수컷이 마련한 선물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물이 마음에 들면 암컷이 주둥이를 찔러 식사를 하고 수컷은 그 순간 짝짓기에 돌입한다.

곤충들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가페적인 것도 있는데 송고한 모성애의 사례로 '에사키벌레노린재'를 들 수 있다. 처음 발견한 일본 학자의 이름을 따 일본 느낌의 이름을 지냈지만 우리나라에도 흔한 곤충이다. 등쪽의 노란색 하트 무늬는 누구나 한번쯤 봤을 법한 색상과 모형을 지녔다. 일반적으로 곤충 어미는 알을 낳고 죽지만 이 곤충은 새끼가 성장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양육을 한다.

어미는 10일 이상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새끼를 품에 안고 지킨다. 천적이 다가오면 비상 신호를 보내 숨게 하고 천적이 사라지면 페로몬을 방출해 새끼들을 다시 품는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암컷은 "호롱불이 서서히 꺼지듯" 죽음을 맞이한다.

책의 제목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속담과 연계된다. 곤충은 절대로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자는 한 곤충이 여러 종류의 밥을 먹을 능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오랜 진화과정 속에서 편식에 익숙해졌는데 노랑나비 애벌



몸집이 작은 수컷 무당거미가 몸집이 큰 암컷과 짝짓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몸집에 비해 큰 날개를 가진 담흑부전나비.

레는 토끼풀같은 풀과 식물 잎만 먹는다는 것이다. "현명하게도 곤충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정해놓고 각각의 입맛에 맞게 식사함으로써 식물도 살리고 자신들의 식량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곤충의 지혜가 위대할 뿐입니다."

이밖에 책에서는 저마다 삶의 방식을 지닌 곤충의 이야기, 치열한 생존의 현장 등 곤충들의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찍은 생생한 사진을 보는 재미는 덩어리다. <김영사·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쩌다 예술을 해서

김태희 지음

대체적으로 예술가들의 삶은 고달프다. 좋아하는 예술을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생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냉혹한데 그렇다고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도 없다. 삶이 고달플지라도 예술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예술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다.

젊은 작가들에게 현실 이야기와 위로로 담은 책이 발간됐다. 예술가이자 전 바라예술성장연구소 김태희 소장이 펴낸 '어쩌다 예술을 해서'는 현실적인 조언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영아티스트 멘토링과 문화재단 아카데미 등을 매개로 젊은 예술가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단과 한화그룹 등에서 예술 사업과 관련한 정책, 전략 기획 등에 참여했다.

저자는 위로나 좋은 말이 아닌 냉정하게 예술가들의 삶을 직시한다. 일반적인 예술로의 진입은 낭만적이기 일쑤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날카롭게 짚는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을 양산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이야기한다.

예술가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자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잘 숙련된 능력이었지만 이후에는 능력 외에도 고전적인 주제와 신화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는 것이었다고 언급한다. 오늘날에는 예술이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며 다양하고 복잡해졌다고 진단한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변화하는 것이기에 독창적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등장했다.

저자는 정오의 태양 가운데 홀로 외따로이 서 있는 예술가들을 향해 용기를 가지라고 촉구하는 한편 때 때리는 현실을 직시하라고도 조언한다.

<착한 책가게·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최고은 옮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101번째 작품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가 한국에서 출간됐다. 지난해 출간 즉시 일본 서점 미스터리 판매 전제 1위를 석권한 소설이다.

이야기는 호화 별장지에 여름 휴가를 온 다섯 가족의 파티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날 밤 별장에서는 다섯 명이 살해당하고 한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진다. 범인이 저수했지만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상황. 살아남은 사람들은 참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증을 연다.

검증회 자리에는 장기 휴가 중이던 가가 교이치로 형사도 참석했다. 가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추고 있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예측하지 못한 진실이 그 정체를 드러낸다.

이번 작품에도 역시나 가가 형사가 등장한다. 1986년 발표된 '죽임'을 시작으로 38년째 이어진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 시리즈의 정수인 '가가 형사 시리즈' 열두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가가 형사 시리즈는 전통적인 명탐정물의 재미에 더해 등장인물들의 애달픈 서사로 특별한 울림을 주는 히가시노 게이고표 미스터리로 꼽힌다.

작가는 2019년 전직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이 은둔형 외톨이 아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을 죽이고 자수한 존속살해사건을 작품 일부의 모티브로 삼으며 독자들에게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본격 미스터리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그 틀을 이루는 배경과 인물들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해 독자들이 더욱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평론가 센가이 아키유키는 "최근 10년 히가시노 작품 중 틀림없는 최고 걸작"이라고 평했다.

초판 한정으로 저자 친필 메시지 인쇄본이 실렸다. <북다·1만9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물의 시대

에드워드 월슨-리 지음, 김수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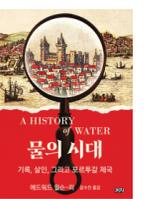
포르투갈의 왕립 기록물 보관소장인 '다미앙 드 고이스'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최전선에 있던 루터와 교류했으며,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와도 소통하는 등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다미앙은 어느 날 반쯤 타다 만 문서를 쥔 채로 벽난로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현전하는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시신에는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미앙이 정확히 불에 타 죽은 것인지, 교살된 것인지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른바 '미스터리한 죽음'인 것.

케임브리지대 시드니 서섹스 칼리지 선임연구원으로 중세-르네상스 문학을 강의하는 에드워드 월슨-리가 '물의 시대'를 펴냈다. 대항해시대에 항로 확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양 패권국이 됐던 '포르투갈 제국'을 중심으로 1550년대 세계사의 모습을 살펴본다.

책 속 서사는 다미앙의 기묘한 죽음을 추적하면서 전개된다. 그의 사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최고 시인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몽이스의 저작물 중에는 왕립 기록물 보관소장 살인사건의 비밀을 풀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 1903년 포르투갈의 리스보아 국립 도서관에 보관된 문서를 중 포함된 카몽이스의 편지들은 그 단서다.

저자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었던 '물'을 모티브로 근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하나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만방자함이며, 다른 하나는 '물'의 유통성처럼 세계의 중심이란 그 어느 공간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 시각은 카몽이스와 다미앙의 행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까치·2만2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8월호

2024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레마마을, 지역을 살리다

찾고 싶은 이유가 있다, 인기 레마마을의 매력

- 문화 콘텐츠로 활기 충전, 광주-전남의 레마마을들
- 문학과 도서관으로 문화매가 변신, 인제 만해마을

## 시간여행 낭만바다 힐링섬길

한국의 남해안-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⑤

### 구름가뭇물 흐르듯... 조선의 명필

서화가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⑥  
전 세계 희귀 조개, 고동 한 자리에  
개관 4년째 관람객 12만 명, 신안 세계조개박물관

## 김동호

다큐 주인공으로 칸레드카펫 받은 '영화청년'

"영화는 내 삶의 일부, 함께 가는 반력"

영화청년 40주년, 남도투어 ⑧

### 술과 바다가 전해주는 위로 치유와 힐링의 전남

화제의 문화현장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를 가다 ②  
또 하나의 주제전 아르세날레 전시관

호남의 누정 ⑧-광주 쾌고정수  
지역과 후손 사랑 큰 그늘, 누정 님은 600살 왕버들나무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미국이 원하는 '미스터 프리저던트' 답은 영화에 있다

평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⑧  
온수리교회(성공회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만든 화가, 김용철

문화 회제  
국창 예술촌 기리고 신인 발굴·육성하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